

“엄마랑 얘기하며 책 읽어 신나요”

어린이 도서관 전국에 30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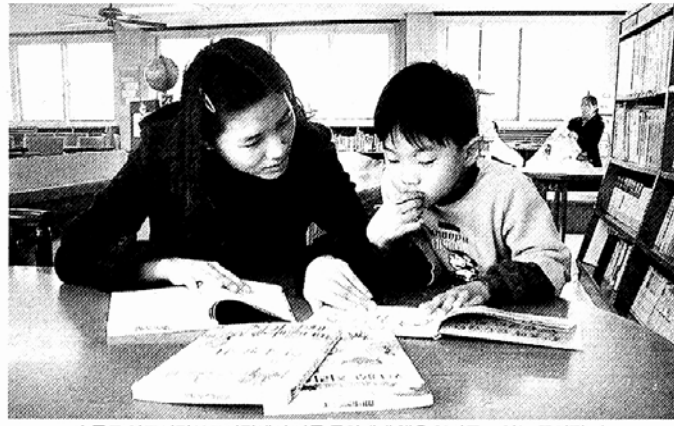
“애들아, 만두에는 뭐니 뭐니 해도 김치가 많~이 들어가야 맛이 난단다!”
주하정(34·서울 구로동) 씨는 21일 구로인포어린이도서관에서 아들 동희(7, 딸 다희(5)에게 <손 큰 할머니와 만두 만들기> (재미마주라는) 동화책을 읽어주기에 여념이 없었다. 주 씨가 2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이곳 어린이도서관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고,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아이가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어 일주일에 3~4일은 꼭 찾는다.

아직 일반인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어린이 도서관’은 가까운 곳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90년부터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이 하나 둘 문을 열면서 현재 전국에 30여 개의 시설도서관이 운영중이다. 대부분의 어린이도서관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사회복지회관에 자리 잡고 있어 엄마와 아이들이 찾기 쉽고,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읽을 수 있는 그림책과 창작·전래 동화책 3,000여권

이상을 갖추고 있다. 에스케이 문화재단이 국내 14곳과 해외 8곳에 문을 연 ‘인포어린이도서관’은 대표적인 어린이도서관이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 상계동(938-8576)과 성북구 월곡동(916-9194), 강서구 가양동(668-8600)에 문을 열어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직동 ‘어린이도서관’도 주민등록등본만 가져오면 가족회원으로 무료 가입할 수 있어 현재 3만여 가족이 회원으로 등록된 상태다. 이들 도서관 외에

어머니 독서동아리 등 지역 문화공간

각 지역에 마련된 시설 도서관은 보통 1~2만원의 입회비와 월 1만원이 넘지 않는 회비를 내면 책을 보거나 빌려 갈 수 있다. 어린이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으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마다 어린이 독서지도와 글쓰기 교실, 어머니 독서 동아리 등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



◀구로인포어린이도서관에서 아들 동희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주하정 씨.

의 문화 공간 역할도 하고 있다. 또 이들 독서 모임은 ‘책 읽는 모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육아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기도

●어린이 도서관

| 지역 | 도서관 | 연락처 | 위치 |
|----|-------------|---------------|-----------------------|
| 서울 | 인포어린이도서관 | (02)722-0194 | www.inpobib.or.kr |
| | 남대문로 어린이도서관 | (02)456-0005 | 광진구 지동3동 우성아파트 상가 2층 |
| | 파랑새어린이도서관 | (02)2009-0206 | 송파구 신대동 상림아파트 상가 2층 |
| | 북촌어린이도서관 | (02)2297-5605 | 성동구 행당동 134-6 |
| 경기 | 초록공간 | (02)554-9973 | 강남구 대치동 은마사거리 |
| | 어린이 도서관 | (02)736-8911 | 종로구 사직동 사직공원 내 |
| | 불우어린이도서관 | (02)818-1140 | 인천시 현수역 현수2동 820-14 |
| 충청 | 산울어린이도서관 | (031)297-6532 | 수원시 연수동 연수초교 |
| | 반달어린이도서관 | (031)563-9275 | 구미시 수택동 850-4 관동초교 6층 |
| | 안녕어린이도서관 | (031)722-7004 | 상주시 장성읍 신대리 1901 |
| | 보림의 집 | (030)648-6013 | 강릉도 강릉시 용강동 31-5 |
| 부산 | 초록아래 | (041)206-5050 | 창주시 상동동 관동동 1380 |
| | 산울어린이도서관 | (041)206-6206 | 대천시 유성동 연동동 300-8 |
| | 유송어린이도서관 | (041)574-8475 | 진주시 양동동 |
| | 북동어린이도서관 | (051)821-8977 | 부산 대연동 1364-7 |
| 제주 | 산울어린이도서관 | (064)749-0070 | 연동 210-5 연동초등학교 |

한다. 특히 구로인포도서관의 ‘동심을 꿈꾸는 엄마들의 모임’은 엄마들이 매 주 한 번씩 모여 동화를 읽고 자녀 교육을 고민하는 모임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아직 ‘도서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들에게 구로인포도서관 양효정 사

서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책을 고르고 읽는 것이 책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아이들에게 무조건 책읽기를 강요하지 말고 책을 매개로 하여 자칫 소홀하기 쉬운 아이와의 대화 기회를 만들어 볼 것’을 당부했다.

여성담당 = 이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신행담

제7회 신행수기 당선작

현대불교 사장상

불교와의 첫 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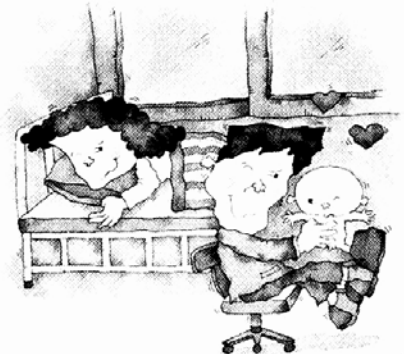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둘째 아이 모스크바에 묻은 내게 큰스님 “아들로 다시 오고 싶단다”

모스크바 공항에서 만난 집사람의 얼굴이 침울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는데 오늘 새벽에 정여가 갔다고 했다. 그 동안 정여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기억들이 하나씩 생각나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항공사에 전화해 국내로 운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부탁해 놓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스님께 전화를 했다. 큰스님께서는 한국으로 운구를 하지 말고 화장을 하라고 하셨다. 또 화장한 뼈가루를 큰 바다로 나가는 강에 뿌리라고 하셨다.

추운 모스크바 겨울 강에서 얼음이 얼지 않은 곳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우리는 정여를 화장한 뼈가루를 모스크바 강에 뿌린 후 눈밭에서 3번 절을 하고 급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큰스님을 찾아가다. 큰스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더니 “잘 모르니까 눈물이 나지 자세히 알면 명심달음 춤을 춰요”이라고 하셨다. 그러시면서 아들을 새로 하나 낳지 않겠냐고 물으셨다. 방금 아이 장례 치르고 온 부부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일었다. 집사람이 이미 마흔 두 살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날 큰스님께 인사만 드리고 울산으로 내려왔다.

며칠 후 큰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큰스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정여

가 다시 아들로 오고 싶어 하니까 아이를 가지라”고. 그러나 나는 “자신이 없 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돌아왔다. 이후 가족과 함께 빈 자리에서 또 “아이를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순간 나는 내가 모스크바에서 한 약속을 떠올렸다. 장례를 치르고 한국으로 가면 스님께서 시키는 일이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노라고 한 약속을. 그로부터 우리는 노력하여 결국 아이를 갖게 되었고 스님께서는 건 강한 사내아기를 낳을 것이니 몸과 마음 가짐을 잘 하라고 일러주셨다.

드디어 온 가족의 축복 속에 아이가 태어났다. 큰스님의 제복과 지시, 그리고 과감하게 큰스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우리 부부의 결단으로 먼저 간 정여가 튼튼한 신체를 가진 사내아이의 몸으로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셋째 아이 중얼이 선원에서 주신 선물이라면 먼저 간 정여는 우리 부부와 큰아이 서운이에게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 오신 보살님임을 틀림없다. 그리고 그 보살님은 현재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 항상 우리들의 마음자리가 울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우리 부부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기로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큰스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끝)

김규현(울산시 남구 무거동)

비용저렴 스님 집전으로

사찰서 차례 지낸다

받고 있다. 사찰 합동차례는 가정에서 지내는 것 보다 비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일반 유교식 차례가 아닌 불교식 차례를 지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특히 종교문제로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거나 미처 고향에 가지 못한 사람들, 혼자 차례상을 차리기 힘든 장애인, 간단히 차례를 지내고 여행을 떠나는 신세대 부부 등이 주로 신청한다. 스님이 모든 의식을 집전하는 불교

식 차례는 불전에 차 공양을 올린 후 조상에 예를 올리는 순서로 진행된다. 차례비는 합동차례가 3~7만원, 위패를 따로 모시는 단독차례는 10~20만원 정도다. 지난해의 경우 부산 삼광사의 설날 합동차례에는 150여 가족이 참여했고, 서울 금강사는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차례상을 차려 놓아 가정형편이 어려워 직접 차례를 지내지 못한 사람들이 차례를 올릴 수 있게 했다.

기와 성묘용 이동식 제기, 전통유과 등을 판매하고 있다. 능원 인터넷 하나로클럽(www.shopping.nonghyu.co.kr)은 품질인증, 친환경 농산물 어브, 산지와 가격대별 제수용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옥션(www.auction.co.kr)은 2월 6일까지 ‘설날맞이 제수·성묘용품 공동구매’를 실시해 제수용품들 시중보다 최고 45%까지 할인 판매한다.

인터넷 쇼핑몰 밥(www.bap.co.kr)은 주부를 위한 ‘맛충행’ 제수용 생선세트 2종을 판매한다. LG이숍(www.lgishop.com)은 ‘설날맞이특집’에서 성묘객을 위한 총 전식 미니 예조기와 굴비, 과일 등을 판매 중이다. CJ몰(www.cjmall.com)도 ‘설 상품 기획전’을 열고 목제기 세트와 목제 기합, 교자상, 병풍 등을 판매한다.

여성 단신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신설

경찰청 내에 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됐다. 경찰청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여성·청소년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14일 경찰청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초대 과장에 김강자 총경을 임명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청소년 정책, 여성계, 청소년계로 구성되며, 앞으로 매대춘 및 청소년 범죄 예방과 단속을 벌이게 된다.

정보화 교육 수강생 모집

여성자원금과 인천여성문화회관은 2월 6일부터 2개월 과정의 여성정보화교육, 창업준비반, 단기 취업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또 3개월 과정의 한식조리기능사, 출장요리교실, 생활영어, 생활일어, 국어 수강생도 모집한다. 선착순 접수. 032511-3141

서울여성영화제 봉사자 모집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는 슬로건 아래 4월 4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4회 서울여성영화제’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18세 이상으로 사무, 상영관지원, 수행동역, 필름수송, 데일리뉴스 취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면 신청가능하다. 2월 22일까지 지원서를 서울여성영화제 인터넷 사이트(www.wffs.or.kr)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02588-5355

설날 차례 지내는 주요사찰

| 지역 | 사찰 | 전화번호 |
|----|-----------|---------------|
| 서울 | 법정사 | (02)7971-0303 |
| | 조계사 | (02)732-2115 |
| | 능인선원 | (02)577-5800 |
| | 현종사 | (02)7914-3558 |
| | 금강사 | (02)993-3744 |
| | 삼보사 | (02)352-6406 |
| 수원 | 흥주사 수원포교당 | (031)245-9670 |
| | 합일 심원사 | (033)455-3488 |
| 충남 | 공주 김사 | (041)857-9981 |
| | 전북불교회관 | (053)277-3497 |
| 부산 | 삼광사 | (051)808-7111 |
| | 홍도사 부산포교당 | (051)816-2241 |
| 경남 | 김해 은하사 | (055)337-0101 |

조계사 등서 신청 접수

민족의 명절 설을 보름 여 앞두고 조계사와 강남 봉은사, 통도사 부산포교당 등에서 사찰 합동차례 신청을

“설날제수·성묘용품 인터넷서 구입하세요”

설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 구입하려는 주부들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들이 다양한 상품과 할인 혜택을 내걸고 판촉전에 나섰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사이버를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는 목제

알려드립니다

- 기존의 '육임래정비법 개정 증보판'을 구입하신 분께서 금번 '혁신판'으로 교환해 보기를 원하시면 710,000원을 입금하십시오. 새책은 보내 드리겠습니다. 입금 구좌는 도서출판 북문에서 안내하는 본 신문 광고에 있습니다. 이책의 신통함은 이미 검증 되었음을 믿고, 더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았음을 말씀드립니다.
- 금번 한국육임학회는 본회 총재이신 호사선생님을 강사로 모시고 육임학당 호사숙을 개설하여 육임학의 소수 정예화를 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습기간: 2002년 2월 15일부터 3개월간 12주
 - 강습시간: 매주 3시간 (36시간)
 - 강습날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3시
 - 강습정원: 매기(期) 30명
 - 등록비: 매기(期) 100만원(선납)
주택은행 542701-01-044676 이수동·육임학당
 - 등록기간: 2002년 2월 5일까지
지방에서 통학 하실 분은 강습 당일 밤 유숙 가능합니다.
 - 참고로 시주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을 공부한 육임가의 판단능력을 따를 수 없습니다.

○ 장소 안내: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 강북구청 왼쪽 옆 건물 4층(육임학당 호사숙) 지하철 4호선 수유역 하차 8분 출구
○ 문의 전화: 호사숙 02-998-8683 사무국 02-826-0179

권 대장 불교 건축

- 사찰 대응전 건축 전문 업체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 불사하실 스님 상담 환영

권 대장 목재

- * 태백산 일대에서 벌목한 육송
- 판매 종류규격
- 연목: 12자~24자까지 5치~8치
- 원목: 9자: 1자~2자 2치
12자: 1자~2자 2치
18자: 1자~1자 8치
20자
24자 } 1자~1자 8치
30자: 1자~1자 7치
36자 } 1자~2자까지
40자
- 기둥 ○ 도리 ○ 대들보 ○ 일주문 기둥
-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오.

(주) 대창종합개발

대표 본사 02)595-1573 FAX 02)595-1575
전화 제1공장 054)781-4989 FAX 054)781-5989
H·P 019)327-0374
이종명 회장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임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누리 두루하신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대결혼 연구원이 십년 전통의 역사를 갖게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살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활기찬 성원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돈독한 신심으로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위치안내 ◁
부천역 하차 남부역쪽 도로건너면 새천년 핵당홀 골목 첫번째 사거리 우측으로 200m정도 직진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 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032)654-5411
연구실: 032)346-5422
휴대폰: 011)288-2944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병체 산후바람 남습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가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민속의학자 권재우(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